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43>

JCCT 2024-3-6

##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이 지각하는 실습 교육환경, 실습 스트레스가 학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Practical Education Environment And Practical Stress Percei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on Department Adaptation

양혜경\*

Hye Kyung Yang\*

**요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실습교육환경과 실습 스트레스가 학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C지역의 간호대학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실습교육환경과 학과적응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r=.43, p=.001$ ), 실습스트레스와 학과적응은 음의 상관관계( $r=-.15, p=.012$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의 학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습 교육환경과 실습 스트레스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실습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습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실습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실습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요어** : 실습교육환경, 실습스트레스, 학과적응,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is tried to confirm the effect of practical education environment and practical stress percei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on department adapt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54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t nursing universities in Area C.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ractical education environmen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department adaptation ( $r=.43, p=.001$ ),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ractical stress and department adaptation ( $r=-.15, p=.012$ ). The practical education environment and practical stress were identified as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the department. Therefore, in order to positively improve the practical education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train related factors that can help adapt to field practice and prepare measures to improve the practical education environment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practice institutions.

**Key words** :Adaptation to nursing department, Nursing college students. Practical education environment, Practical stress

#### 1. 서론

건강 및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안전과 숙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은 간호활동을 직접 경험해보는 기회로 역량있는 간호사로 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1].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기술과 지식을 획득

\*정회원, 남서울대학교 조교수(제1저자 및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1월 4일, 수정완료일: 2024년 1월 23일  
게재확정일: 2024년 1월 31일

Received: January 4, 2024 / Revised: January 23, 2024

Accepted: January 31, 2024

\*Corresponding Author: joabada12@naver.com  
Dept. of Nursing, Namseoul Univ, Korea

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졸업 후 자신의 역할과 미래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다.

임상실습 기간 동안 간호대학생은 전문적인 간호술기와 태도, 의료팀과의 협력, 환자 및 보호자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의사소통 기술 등을 습득하며 간호사 역할을 훈련한다. 즉,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간호 실무현장에 적용하며 대상자의 요구와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임상 실습 현장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고려하여 실제로 간호대학생들이 직접적인 술기 등 간호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낮다.

최근 몇 년간 간호대학 및 간호학생의 정원 증가로 임상 실습현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간호대학생들은 우수한 임상 실습 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학교로부터 원거리의 실습기관 또는 방학 중에도 실습을 하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2]. 실습기관에 따라 실습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적 분위기도 상이하여 기관에 따른 간호대학생들의 적응도 요구된다.

임상 실습현장에서의 교육은 간호관리자의 실습교육에 대한 인식, 간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습지도를 해야하는 부담, 병원 직원들과의 관계 및 협조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다. 따라서 임상실습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교육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강의실에서 배운 간호술기를 현장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지만, 대부분 관찰에 불과하고 간호사의 업무보조로 대체되는 것에 대해 실습에 대한 회의와 실망감을 갖게 된다[3]. 임상실습에서는 기본 술기를 적용해 보는 경험외에도 병원의 여러 직원과의 협력, 환자와 보호자와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간호대학생들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임상 실습현장에서 학습자이자 간호의 일원으로서 이중적이고도 모호한 역할을 취하게 된다. 비록 임시라도 기관의 일원이 되어 지휘체계의 사회적 관계안에 있으면서[4]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어색하고 친숙하지 않은 병원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고 통제하는 훈련을 하며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다[5]. Hwang 등[6]의 보고에 의하면 분주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병원 환경에서 간호학생들은 때때로 학습자로서의 권리를 배려받지 못하거나, 존중받지 못하고, 무례함을 경험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생명을 다루는 긴장된 현장에서 불안과 피로감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실습 과정 중에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실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잃게 되고, 실습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간호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상실하게 되고,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감으로[7], 간호 직업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임상실습 적응을 어렵게 한다.

임상실습에서의 긍정적 기억과 경험은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 및 임상에서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임상실습 과정에서 실습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학과 공부에 흥미를 잃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전공 및 진로를 찾게 되어 미래 전문인력을 떠나 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8].

원만한 실습 및 학과 적응은 대학생생활 전반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하며 졸업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쳐 성공적인 대학생생활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9]. 그러나 임상실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향후 진로에 대해 긍정보다 실패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졸업 후 간호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부적응을 초래한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규 간호사가 1년 안에 사직하는 비율이 2021년 53%에 달하며 그중 업무 부적응으로 사직하는 비율이 32.6%로 가장 높은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그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변인으로는 그릿[2], 자존감[7], 전공 만족[9], 스트레스 대처방식[11], 사회적지지[12] 등 다각도로 대학생생활 및 학과 적응에 대해 살펴 보았으나, 임상실습 교육환경과 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통해 학과 적응을 살펴 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육환경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경험이 전공학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는 것은 성공적인 실습 이수 및 학과적응 지원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장실습 및 학과 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학과 적응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대학생이 지각하는 임상 실습환경과 임상 실습 스트레스가 학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임상 실습을 경험한 대학생이 지각하는 임상 실습환경과 임상 실습 스트레스, 학과 적응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임상 실습을 경험한 대학생이 지각하는 임상 실습환경과 임상 실습 스트레스, 학과적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임상 실습을 경험한 대학생이 지각하는 임상 실습환경과 임상 실습 스트레스가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실습교육환경, 실습 스트레스가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C 지역에 있는 간호대학에서 실습경험이 있는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 인원 산정은 G power program을 통해 선행연구[13]에 근거하여 효과크기 0.15, 검정력 0.80, 유의수준 0.05으로 121명이 산출되었다. 탈락율 10%를 적용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8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54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실습교육환경

실습교육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Dunn & Burnett[14]이 개발하고 Han[15]이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직원과 학생의 관계, 병원 분위기, 간호관리자의 수행, 환자와의 관계, 학생만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19문항 5점 척도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교육환경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Han이 수정보완한 도구의 Cronbach's  $\alpha$  = .84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8이었다.

#### 2) 실습스트레스

실습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Beck과 Srivastva[16]가 개발하고 kim과 lee[17]가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실습교육환경, 부적절한 역할모델, 실습업무 부담, 대인관계 갈등, 환자와의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과 lee가 수정한 도구의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 3) 학과 적응

학과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Park[18]이 개발한 도구로서 대인관계, 전공만족, 전공수월성, 대처역량, 취업준비, 학업충실도로 구성되어 있는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총 34개 문항의 5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이 개발한 도구의 Cronbach's  $\alpha$  =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8이었다.

####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C 지역의 간호대학에서 2023년 10월 9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에게 교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연구의 취지 및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제공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면 동의란에 체크하게 한 후 Google의 온라인 URL을 접속하여 설문에 응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료는 헬싱키 선언에 기반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 개인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고, 무기명으로 진행되어 비밀이 보장됨과 설문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참여 거부시에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설문문으로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열람이 가능하고, 연구 종료시에는 즉시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 5. 자료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실습교육환경, 실습 스트레스, 학과적응 수준은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실습교육환경, 실습 스트레스, 학과적응 수

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로 분석하였고,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에서 여학생이 135명(87.7%), 남학생은 19명(12.3%)이었고, 3학년이 76명(49.4%), 4학년 78명(50.7%)으로 나타났다. 실습한 기관의 수는 3개 미만이 33명(21.4%), 3개 이상이 121명(78.6%)이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117(76.0%), 보통 23명(15.0%), 나쁘다가 14명(9.0%)로 나타났다.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general

(N=154)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19	12.3
	Female	135	87.7
Grade	3rd	76	49.4
	4th	78	50.7
Age	≥24	133	86.4
	25<	21	13.6
Number of practice hospital	<3	33	21.4
	≥3	121	78.6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17	76.0
	Moderate	23	15.0
	Poor	14	9.0

#### 2. 실습교육환경, 실습 스트레스, 학과적응의 수준

실습교육환경, 실습 스트레스, 학과적응의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실습교육환경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10±0.79로 나타났다. 실습 스트레스 평균은 5점 만점에 3.79±0.53, 학과적응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56±0.80으로 나타났다.

#### 3. 실습교육환경, 실습 스트레스, 학과적응의 상관관계

실습교육환경, 실습 스트레스, 학과적응과의 상관관계는 Table3와 같다. 학과적응은 실습교육환경( $r=.43, p=.001$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습환경이 좋을수록 학과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 스트레스와 학과적응( $r=-.15, p=.012$ )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과적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교육환경과 실습 스트레스( $r=-.28, p=.517$ )는 음의 상관관계

를 보여 실습교육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실습 교육환경, 실습 스트레스, 학과 적응의 수준  
Table 2. The level of practical education environment, Practical stress, Adaptation to nursing department

(N=154)		
Variables	M±SD	Min~Max
Practical Education Environment	3.10±0.79	1.11~5
Practical Stress	3.79±0.53	2.14~5
- Educational environment	4.25±0.68	
- Role model	3.53±0.25	
- Practice burdens	3.89±0.45	
- personal relation	3.65±0.57	
- Patient conflicts	3.24±0.64	
Department adaption	3.56±0.80	1.03~4.72

표 3. 실습교육환경, 실습 스트레스, 학과적응과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ractical education environment, practical stress, and departmental adaptation

(N=154)			
Variables	Practical Education Environment	Practical Stress	Department adaption
	r(p)	r(p)	r(p)
Practical Education Environment	1		
Practical Stress	-.28(<.517)	1	
Department adaption	.43(<.001)	-.15(<.012)	1

#### 4.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학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습 교육환경, 실습 스트레스를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값은 0.57-0.96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03-1.67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실습 교육환경( $\beta=.29, p=.001$ ), 실습 스트레스( $\beta=-.21, p=.001$ )가 학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학과 적응을 설명하는 모형의 설명력은 32.3%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31.57, p<.001$ ).

표 4.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Table 4. Factors influencing departmental adaptation  
 (N=154)

Variables	Department adaption				
	B	SE	$\beta$	t	p
Practical Education Environment	.24	.03	.29	3.32	.001
Practical Stress	-.15	.02	-.21	-3.14	.001

$R^2=.323$ ,  $F=31.57$ ,  $P<.001$

#### IV. 논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실습 교육환경, 실습 스트레스가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실습교육환경 수준은 평균 3.10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측정된 Han[19]의 연구에서는 평균 2.75점으로 본 연구에 비해 Han[23]의 연구에서 더 낮은 결과를 보였고, Sin[20]의 연구에서는 3.32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측정하였음에도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이유는 각 연구마다 간호대학생의 실습기관이 서로 상이하여 실습환경이나 실습 분위기를 다르게 지각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임상실습 기관은 기관의 분위기, 교육환경, 임상지도자, 환자의 건강상태 등 강의실과 달리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환자의 건강상태, 응급상황 등 실습교육환경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다양한 상황으로 변화한다. 강의실과 대비되는 현장의 역동적인 교육환경을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점차 자신감을 잃고, 실습의 흥미도 낮아지게 되어, 교육의 효과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실습기관의 경직된 사회 조직 및 현장의 특수한 분위기를 이해하여 실습교육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습 스트레스는 본 연구에서는 평균 3.79점을 보였고, Park 등[21]의 연구에서는 3.02점, Hwang[22]의 연구에서는 평균 3.15점으로 선행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 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실습 스트

레스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기는 하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임상실습을 처음 하는 저학년의 경우는 생소하고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과 긴장감이 고학년보다 실습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고학년은 여러번의 실습경험을 통해 현장에 적응도 하고, 임상술기도 익숙해 지면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저학년 보다 낮다는 보고가 있다[23]. 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을 보면, 실습 업무부담과 실습교육환경 요인에서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현장에 적용시 자신감이 부족하여 맡겨진 업무에 부담을 느끼게 되며 특히 강의실에서 연습한 환경과는 다른 현장 상황에서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술기 등의 적용이 심리적 부담이 되어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im 등[24]의 연구에 의하면 임상실습수행능력은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소라고 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간호술기, 환자와의 의사소통, 인간관계 등과 관련된 실무중심의 교육훈련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습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요인은 환자와의 갈등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실습의 대부분이 관찰과 반복되는 단순 업무로 인하여 환자와 직접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고 관계 맺는 기회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Hwang[22]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시 허용된 범위에서 의사소통, 신체검진 등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환자에게 직접 적용해 보는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임상실습지도자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과적응 수준은 낮아지고, 실습교육환경의 수준이 낮을수록 학과적응 수준도 낮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학과적응 수준은 평균 3.56점이었으나, Lee 등[9]의 연구에서는 평균 3.91점으로 본 연구에서 더 낮은 학과적응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연구는 아니지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적응을 측정된 Jo 등[25]의 연구에서도 학과적응수준이 3.84로 본 연구결과에서 학과적응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서 실습 스트레스 및 실습환경 등을 통해 실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아지고, 실습에 적응

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과적응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실습교육환경과 실습 스트레스와 관계된 학과적응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실습시 환자 및 간호사들의 눈치를 보고, 대인관계에 곤란을 느끼면 실습적응이 낮았다는 보고가 있다[26]. 간호대학생은 강의실과 다른 낮은 환경에서 간호사, 환자, 보호자, 여러 부서의 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간호현장의 환경과 대인관계 등을 통한 실습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간호업무 및 직업관에 영향을 미치면 미래에 간호사로서 역할수행에 자신감을 잃고, 진로에 대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Je 등[27]의 연구에서도 학과적응은 실습적응과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 업무와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따라서 실습 적응을 위해 원만한 대인관계 향상 등 실습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실습 환경에 적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 교육환경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개의 변인이 학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실습교육환경과 실습 스트레스가 학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실습 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학과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실습 교육환경, 실습 스트레스가 학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실습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성공적인 학과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실습 교육환경, 실습 스트레스는 학과 적응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둘째, 실습 교육환경과 실습 스트레스가 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습 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습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실습 스트레스 관리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습교과목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습 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실습 스트레스 및 실습 교육환경에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실습 스트레스 감소 및 실습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전략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효과를 평가해 볼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Yim, W., & Chan, D. S. K. "Hong Kong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the clinical environment: a questionnaire survey", *Nursing Studies*, Vol. 42, No. 6, pp. 665-672. 2004.
- [2]M. S. Lee. "Relationship among nursing students' grit, academic self-efficacy, stress in clinical practice, and college life adaptation".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24(4), 170-179. 2023.
- [3]Cho, M. H., & Kwon, I. S.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3(2), 143-154, 2007
- [4]H. W. Kwak, J. E. Yi,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147-155, 2016. <https://doi.org/10.5762/KAIS.2016.17.2.147>
- [5]Park SJ, Park BJ. "Relationship of clinical practice stress to clinical competence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Korean J Stress Res.* 21:313-322. 2013.
- [6]Hwang, Y. Y., Joo, M. S. "The rudeness experienced by a nursing student in a relationship with a nurse during field training". *Korean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7, No. 1, pp 29-38. 2021.
- [7]S. J.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pp. 205-213, 2006.
- [8]Park, B. J., Park, S. J., Jo, H, N. "The relationship

-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nursing professional".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Technology*, Vol. 17, No. 7, pp 220-227. 2016.
- [9]Lee, J. W., Kim, Y. Y., Oh, S. O., Woo, M. Y., Yoon, S. B., Lee, K. H., Kim, Y. J.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f the first year of nursing college on department adaptation". *Nursing Science Gyeongsangbuk-do*. Vol. 27, No. 1, pp 23-32. 2023.
- [10]Korean Nursing Association.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ing personnel placement and working conditions". *The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23. <https://kosis.kr/common/>
- [11]Lee, J. W., Lee, Y. S. "The effe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tress response methods on college life adaptation". *Society of Health and Medical Industry*, Vol. 7, No.2, pp 125-134. 2013.
- [12]Kim, J. H., Jang, S. R., Ji, H. J., Jeong, K. J., Seo, Y. J., Kim, J. H., Choi, Y. S. "The effect of parents' social suppor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career identity".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Technology*, Vol. 16, No. 9, pp 6027-6035. 2015.
- [13]Kwak, E. M., Yoon, H. J., Park, M. E. "The effect of disrespect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and the clinical practice education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stress".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Technology*. Vol. 22, No. 2, pp 160-168. 2021.
- [14]S. V. Dunn, P. B. PhD. "The development of a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scale", *Advanced Nursing*, Vol.22, No.6, pp.1166-1173, 1995. <https://doi.org/10.1111/j.1365-2648.1995.tb03119.x>
- [15] J. Y. Ha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2, No.5, pp.2595-2607, 2010.
- [16]D. L. Beck, R. Srivasta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Vol.30, No.3, pp.127-133, 1991. <https://doi.org/10.3928/0148-4834-19910301-08>
- [17]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98-106, 2005. DOI: <https://doi.org/10.14257/a.stl.2016.140.38>
- [18]Park S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p. 1-125. 2017.
- [19]Han, J. Y. "Clinical Practice Education Environment Recognized by Nursing Students".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2, No. 5, pp 2595-2607. 2010.
- [20]Sin, S. O.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clinical practice education environment, practical subject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Convergence Information Paper*. Vol. 7, No. 6. pp 19-24. 2017.
- [21]Park, H. J., Oh, J. W.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17-426. 2014.
- [22]Hwang, H. M.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communicat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Medical Communication*. Vol. 12, No. 1. pp 1-10. 2017.
- [23]H. S. Kim,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16, No. 1, pp. 64-76, 2002.
- [24]S. Y. Kim, Y. S. Shin,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9 pp. 234-242,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9.234>
- [25]Jo, M. H., Cha, Y. M., Lee, H. O.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vocational values-major consistency and major adapt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41, No. 6 pp 27-44. 2022.
- [26]K. H. Kim, K. D. Kim, H. S. Byun, B. Y. Chung, "Spiritual Well-Being, Self Esteem, and Attitude to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Asian Oncology Nursing*, vol.10, no.1, pp.1-9, 2010.
- [27]N. J. Je, M. R. Park, "Impact on Department Adaptation of Field Practice Adaptation, College Adaptation, and Awareness of Death of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0 pp. 300-312,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10.300>

※ 이 논문은 2023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